

충장로에 'K-POP 스타의 거리' 조성

광주시가 한류 스타의 산실인 충장로를 '케이팝(K-POP) 스타의 거리'로 조성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37억원을 투입해 케이팝 스타의 거리 조성, 케이팝 체험관광 프로그램, 안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 도심관광트레일' 프로그램에 문화 콘텐츠와 안내 시스템을 보강해 진행한다.

광주시는 케이팝 스타의 거리, 스타와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간인 더팬존(The Fan Zone), 숨은 아이돌 찾기 콘텐츠 조성 등 광주 출신 케이팝 스타들의 특성을 살린 거리를 충장로에 만든다.

광주시,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사업

총 사업비 37억원...2021년까지 완료

케이팝 스타의 거리는 방탄소년단 제이홉, 유노윤호, 수지 등 광주 출신 케이팝 스타들이 활동했던 동구 충장로 구 화성회관 뒷골목을 케이팝 스타 핸드프린팅, 벽화 포토존, 히스토리 포토월, 도로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휴식쉼터 등으로 조성한다.

더팬존은 케이팝 스타와 팬들이 직접 기획하고 연출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스타 전시·체험 공간으로 금남로 공원과 지하상가 등 총 4곳에 꾸민다.

숨은 아이돌 찾기 콘텐츠는 광주 곳곳의 상점 간판과 도로 담벽 등에 스타의 캐릭터를 피규어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광주민의 독특하고 특화된 관광콘텐츠를 담는다.

광주시는 케이팝 스타의 거리, 더팬존, 숨은 아이돌 찾기 등 케이팝 콘텐츠의 내용과 명칭은 시민 공모를 통해 정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광주 도심관광트레일 프로그램의 관광객 편의를 위해 도보 코스별 관광 종합안내판과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각종 사인시스템도 정비한다.

오는 12월에는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사업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공사에 착공해 2021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명순 광주시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사업은 문화전당권 물레를 걸으며 광주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도심관광 전략이다"며 "케이팝 스타의 거리는 지속가능하도록 스타와 팬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운데), 김종갑 한전사장(왼쪽 일곱 번째), 강인규 나주시장(왼쪽 다섯 번째)이 28일 오전 나주 한국전력공사에서 에너지밸리 강소특구 지정·육성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올해 지정 '속도'

도-나주시-한전 협약, 에너지산업 허브 도약 기대

전남도가 나주혁신도시 에너지밸리 올해안에 강소연구특구지정으로 승인 받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28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나주시, 한전과 함께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김종갑 한전 사장, 전남도의회 이만준 부의장과 최명수 의원, 김신용 나주시의회 의장, 강소연구개발특구 관계자 등 30여 명이 함께 했다.

협약서는 공공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및 창업 지원, 특구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제 개선,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특구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협약기관의 역할을 담았다.

올 하반기 과기부 지정 기준에 맞도록 특구계획을 세워 연내 특구 지정 승인을 받겠다는 목표다.

강소특구가 지정되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29개 법령 이행을 일괄 처리가 가능하고 기반시설 조성비도 지원된다.

특구진흥재단을 통한 특구 입주 기업 R&D 예산 지원, 조세감면 등 연구소기업 입주 및 성과 확산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한전공대 주변 연구소클러스터, 국책연구소 등이 강소특구로 지정되도록 나주시, 한전과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빛가람 혁신도시가 에너지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소특구는 대규모 특구 개발을 지양하고 소규모 경쟁력 있는 연구 개발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8년 6월 특구법을 개정해 도입한 제도다.

김정환 기자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통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湖南新聞 062-224-5800 062-222-5548

광주 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 무산 난항 장기화 조짐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예비 후보지로 추천된 4개 지자체의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 요청에 따라 무안·영암·신안·해남 등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주민 설명회 개최를 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4곳 모두 반대한다고 회신했다.

무안군은 전남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모든 설명회 개최와 설명회 배부계획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지속해서 군 공항 이전문제가 거론됐던 특수성을 반영할 때 이러한 설명회 등은 무안군 이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군 공항 이전 반대는 영암군 군의회, 6만 군민의 기본적 입장"이라며 설명회를 여는 것도 개최하더라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남·신안군도 군 공항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민심 설명회 개최·설명회 참석·설명자료 배부 등이 불필요하며 부정적 입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의 난항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번 설명회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데 따라 직접 설명하겠다고 추진해온 첫 공식 자리다.

김정환 기자

동구, 청년 상생비상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광주 동구가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2019년 동구 청년 상생비상 프로젝트를 6월 5일부터 1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년 상생비상 프로젝트'는 청년이 직접 참여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개발·제안하고 프로젝트를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동구는 민선7기 공약인 청년재정활달제 시행 1차년도 시범사업으로 순수 구비 5천만 원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2개 이상 청년단체가 협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젝트'는 청년 커뮤니티 등 참여활성화, 청년진로 탐색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지정주제를 내용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유주제인 '비상프로젝트'는 동구 지역 이슈, 문제 해소 등을 위한 프로젝트 등을 내용으로 5백만~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구, 제32회 세계금연의날 캠페인 실시

광주 서구는 지난 28일 제32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무등산 국립공원 중심사 지구 관리사무소 잔디광장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담배의 폐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흡연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을 기조로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진행됐다.

캠페인에는 광주광역시, 5개구 보건소, 광주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광주금연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13개 기관이 참여했다.

남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공개 모집

광주 남구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 발굴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주민을 공개 선출한다.

28일 남구에 따르면 다음달 4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선출을 위한 공개모집이 진행된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은 동네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산이 수반되는 동네 현안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게 되는 셈이다.

북구, 교통안전 종합체계 구축 나섰다

광주 북구가 광주북부경찰서(서장 김홍균),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본부장 이상태)와 함께 교통안전 종합체계 구축에 나섰다.

북구는 "28일 북구청에서 북구 지역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민 교통편의 증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교통안전 관련 정보공유 △각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홍보 지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북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른 교통체증,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등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자 교통체증 해소 대책추진 TF팀을 운영해 왔다.

광산구,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협약식 체결

28일 광주 광산구가 광산경찰서를 비롯한 11개 교통안전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구청에서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협약식'을 열고, 교통사고 예방과 줄이기를 위해 사제전파와 사고다발지점 정보 공유 등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들러 협약단체들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와 친절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범시민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열기로 했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목포·장성·해남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통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법인 설립 ■기장대리 ■양도상속증여 ■건설면허신청 ■기업진단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지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